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정부가 나서야”

시민모임 관련 법률안 제정 촉구 “스스로 못 나서는 처지 고려해야” 국회 발의 불구 상임위 상정 안돼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일본에 가면 학교 보내준다고 속여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고, 행여 누가 알까 평생을 쉬쉬하며 살아왔던 이들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다”며 “이들의 고통은 해방이 됐다고 해서 그치지 않고 아직도 일제가 씌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전시 노동력 착취 행위 주체였던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에 있다”며 “일본 정부는 해방 후에도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평생 고통의 굴레에서 살도록 했음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법원 배상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많은 국민들이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문제를 아예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우리 정부에 있으며 이 문제를 중요한 여성인권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나 역사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달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심

과 지원 제도가 전무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찍이 1993년부터 정부 차원의 인권보호 의지를 밝힌 후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경우 제도적 지원에서도 소외돼 국가적 지원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중 소외가 계속됐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시민모임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고백하더라도 어떠한 지원이나 위로도 받을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해자임을 감추고 숨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한국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시민모임은 이와관련, “지난 2012년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와 전남, 서울, 경기, 인천, 전북 6개 광역 지자체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정부 지원법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생존자 의료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국의 강제동원 생존자는 광주 116명(여성 11명), 전남 369명(여성 15명) 등 전국적으로 4천34명(여성 167명)이다.

하지만 이 법은 아직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나라가 힘이 없어 당한 아픔을 언제까지 개인에게 떠넘기느냐”며 “정부와 정치권은 광복된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조속히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홍섭기자 zorba85@srb.co.kr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영주기자 jy2578@srb.co.kr

“손혜원 ‘목포 문건’ 보안자료 아냐”

법원, 조카 명의 부동산 처분 안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시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부동산 투기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해당 자료는 보안 자료가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검찰이 청구한 손 의원 목포 부동산 몰수 및 부대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관련, “손 의원 조카 손모씨 명의의 각 부동산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13일 결정했다.

몰수보전은 몰수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절차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날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는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사업 내용의 비밀성이 계속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

육교·다리에 ‘차량 끼임’ 잇따라

광주지역 육교와 철길다리에 차량 적재함·적재물이 끼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광주 동구는 전날 오후 2시에 광주 동구 대인시장-전남여고 간 제봉로 중앙육교하부 일부 부분이 육교 아래를 지나던 트럭 구조물과 충돌해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교량 하부를 받치고 있던 가로 50cm·세로 80cm·두께 5cm 크기 콘크리트 블럭이 도로로 떨어지고 육교 일부가 파손됐다. 동구는 폐기물을 수거해가는 차량의 짐게 부분이 제대로 수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높이 4.4m 육교를 지나다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에 따라 동구는 파손된 육교를 임시 폐쇄하는 한편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31일에는 북구 신안동 광주역 인근 철길다리(신광가도교) 하단에 설치된 열차 충돌방지용 철구조물(높이 4m20cm)에 트레일러 차량 화물칸이 끼었다.

이 같은 사고는 교통 통제·복구 조치를 초래하는 만큼, 제한 높이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영주기자 jy2578@srb.co.kr

광주·전남서 ‘항일 촛불’ 타오른다

오늘 ‘세계 위안부의 날’ 맞아 잇단 ‘아베규탄’ 행사·집회 북구청서 평화인간띠 잇기 남구 문화공연·목포 문화제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규탄과 강제징용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 곳곳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는 인간띠잇기 행사와 문화 공연 등이 진행되고 목포에서는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등 일본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와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광주 북구 평화인간띠잇기추진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북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NO 일본한반도 평화실현’을 주제로 인간띠잇기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북구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비판하는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고 한국 사회 속 친일적폐 청산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행사 참가자들이 소녀상의 손을 잡고 북구청에서부터 전남대 정·후문을 잇는 인간띠를 만드는 방식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같은날 광주 남구는 양림동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문화제’를 연다. 남구 평화나비가 주최하는 문화제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실태에 대한 항의와 함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문화공연이 함께 열린다.

소녀상 앞에서 손글씨와 손도장 퍼포먼스가 이어지는 행사는 각종 공연과 함께 참가자 발언 등이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한다. 또한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발미로 경제압박을 가하고 있는 일본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이날 광주 서구도 서구청 광장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

념행사’를 개최한다. 전남대학교 국악과 학생들의 추모공연과 함께 참석자들의 릴레이 서명도 함께 진행된다.

목포에서는 시민들의 촛불이 문화제 거리를 밝힐 전망이다. 목포문화연대는 ‘아베 신조 규탄 목포시민 촛불 문화제와 행동의 날’을 개최하고 연대에 동참한다.

참가자들은 목포 문화제 거리 내 일본영사관(현재 목포역사1관)과 구 동양척식주식회사(현재 목포근대역사2관) 등을 중심으로 촛불집회를 연다. 집회와 함께 아베 버트장마리 고치기 퍼포먼스, 시민규탄 발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는 “일본 수탈의 역사적 재인식과 일제잔재 청산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며 “아베의 제국주의와 경제·역사 전쟁 도발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jy2578@srb.co.kr

가정에서 만나는 천로역정의 세계! IPTV 및 케이블TV VOD 서비스 개시!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멸망도시’에서 살아간 ‘크리스천’,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웬지 모르게 책에서 눈을 떼 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인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천! 천국에 닿을 때까지!”

전국 극장 절찬상영중

여름성경학교 단체관람 문의 | ☎ 062.376.8500 (광주CBS 총무국) 수입/배급

CBS facebook.com/cbscinema TALK CBS시네마